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영화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모태펀드 운영 영화계 우려 면밀 검토”

문체부, 언론 기사 관련 입장 밝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다시 한번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일보의 ‘방할 영화 같은 날’을 쓴 영화배우 16일자 기사와 관련, 문체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는 ‘대기업 계열 영화배우(소바스)가 정부 출자펀드와 이면계약을 맺고 자사 제작영화에 수익 원을 부당하게 투입했다’, ‘정부가 5년 전 정부 출자펀드의 대기업 영화 투자를 금지했다가 올 들어 이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 배급사들의 거듭된 민원이 결국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면계약 관련 및 후속 조치에는 지적에 대해 문체부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는 “2013년 정부의 모태펀드 창업투자회사(투자운용사) 정기감사에서 문화계정 2개 자펀드의 이면계약

이 적발되어,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해당 투자운용사(자펀드)에 대한 경고 조치, ▲관리 보수 삭감 조치 ▲이면계약 금지의 제도화(당시 중기청 고시인 표준규약을 개정·출자자와 운용사간 협약 체결의 공개 및 승인) 등 사후 조치를 하고 제도를 개선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기업이 배급하는 영화에 모태펀드(문화계정)의 투자 제한 완화 관련, 2015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배급하는 영화의 투자금지 규제를 3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모태펀드 문화계정, 모태펀드 영화계정 등 2개 계정과 대형 배급사의 민원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18년 투자조합, 학계 및 콘텐츠업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포럼을 통해 이 규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화계정이 타 모태펀드 계정에 비해 수익률이 현저히 낮았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2016년~2018년, 예결위, 국정감사 등)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는 영화 분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20% 이하

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점 ▲대기업이 배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 제작한 콘텐츠가 대기업을 통해 배급하는 경우’까지 규제가 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배급영화 투자금지’ 규제를 2019년 1월부터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한해 완화했다”

문체부는 문화산업의 불공정한 유통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한 유통차별 금지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가칭)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법률 제정과 영화 및 비디오품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 독립영화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제작, 유통, 기반시설(인프라) 등]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는 “모태펀드 운영에 대한 영화계의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한국벤처투자(및 투자운용사), 대형 배급업체 등에 대해 영화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익산 세계유산, 서울에서 20일부터 특별전시

익산시 보석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물 작품과 탄생석의 특별 전시회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 개최는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신평섭)가 주최하는 전라북도 관광홍보전의 일환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공사 K-Style Hub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익산시의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인 보석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 예술적 작품성이 뛰어난 보석류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된다.

전시 품목으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물지구 익산의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왕궁리오층석탑 등 역사적 배경으로 백제 장인들의 예술적 혼과 정신이 깃든 보석 작품과 관광객들에게 쉽게 보석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등 12개월 탄생석과 원석 및 가공된 나석 등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수정, 오톤스, 호안석, 플로라이트 등 천연보석 재료를 이용한 보석 팔찌 만들기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는 익산보석

홍보 및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은품도 선착순 50명에게 전달해 예정이다.

또한 행사기간 2018년도 미스춘향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이동식 관광안내소를 운영하여 전라북도 관광 홍보와 관광객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전라북도 전광판이 문화체험도 같이 진행하여 관광객의 만족도와 행사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은 “이번 특별전시회를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세계유산 도시를 홍보하고 보석으로 유명한 익산시를 보다 널리 알릴 계획이다”며 “전북도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바지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는 익산보석 /익산=정인원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 리더 육성 확대 추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운애 센터장)는 유능한 여성인재가 조직 내 핵심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올해로 6년 연속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인재 아카데미는 여성의 사회·경제참여 확대와 미래 여성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지역거점 사업 수행기관으로 2014년부터 함께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특수직 공무원 등 조직 내 중간관리자,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리더, 미취업 상태로 취·창업 준비 중인 39세 이하 청년이며, 각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연 6회 220명을 대상으로 추진 예정이다.

특히 17일 진행 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은 여군 1만 시대에 맞춰 35시간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되어 도내 최초 여군과 군무원

3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올해 신규로 개발된 커리큘럼으로 ‘리더와 리더십’, ‘역성과 리더십 포지션’, ‘핵심 리더십 역량진단’ 등 리더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보이기 위한 4개의 모듈로 구성됐다.

또 양질의 교육을 진행하고 사후 관리를 통해 온라인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 지속적인 역량개발과 여성인재 DB에 등재 기회도 제공되어 영향력 있는 리더로 나아갈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운애 센터장은 “여성에게 리더십 교육과 네트워크 역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에게 미래 지향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우리 지역 다양한 직군 종사자들의 역량개발에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3)254-3814 또는 홈페이지(www.jwrc.kr)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순창군이 최근 ‘생활속 문화예술 작은강좌’ 공모사업을 발표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문화예술 강좌, 이젠 카페에서 들어요”

순창군, 26일까지 카페·음식점 등 시설운영자 대상 참여자 모집

순창군이 카페, 음식점 등 대중들이 쉽게 모이는 장소에 문화예술강좌를 지원한다. 군은 최근 ‘생활속 문화예술 작은강좌’ 공모사업을 발표하고 오는 26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대상은 소규모 문화예술 강좌 운영이 가능한 관내 음식점, 카페 등 모든 업종이 가능하며, 1회당 15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된다. 군은 참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사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순창으로 귀촌하는 인구중에 문화예술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번 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업장을 알리는 홍보효과를 주는 동시에 귀촌한 문화예술인에게는 지역재능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업장 입장에서는 유휴시간을 활용해 강좌를 운영하는 만큼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문화예술강좌 대다수가 관공서 시설을 이용해 운영하다보니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많아 음악, 미술 등 한정된 과목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의 한정된 예술교육에서 탈피해 다양한 문화예술강좌로 문화가 숨쉬는 순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군민들이 문화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시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문화에 관심 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